

박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10월이 분수령'

아권, 국정원·기초연금·채동욱 사태 파상공세

국정감사·인사 파동 큰 부담... 민심 향배 주시

10월이 박근혜 대통령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과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기국회가 최대 변수다. 여야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일간 각 상임위별로 파견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아권은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는 물론이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 공약 후퇴 문제를 내세워 파상공세를 퍼부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기소 문제로 눈박은 채 총장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찍어내기' 한 것이라며 본격 쟁점화할 태세다.

국정감사 기간 3가지 사안에 대한 아권의 의욕 제거나 주장이 사실상 드러나거나, 민심을 흔들 경우 박근혜 정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우선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원 개혁 요구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대통령으로서 정기국회 상황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난 30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임식으로 '제1막'이 끝난 '채동욱 사태' 역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채 총장 몰아내기 공보 의혹이 드러난다며 그 파문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두 번째 변수는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면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8월26일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인 감사원장 자리와 지난달 10일 이후 역시 자리가 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자리를 채우는 작업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달까지 넘기면 인사파동을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는 복지 정책의 중요성과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을 각각 감안할 때 인선이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세월호 다자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를 잇따라 방문한다.

그러나 이전의 미국·중국·G20(주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정병헌 원내대표, 김현, 신경민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박 대통령이 특별히 누렸던 '외교 효과'를 이번에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일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민행복을 화두에 두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10월이 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통과도 걸려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에 보이는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국정난맥 한계 도달... 박대통령 인사쇄신해야"

김한길 "몇몇 장관도 문제점 거론... 개각 필요한 시점"

민주당은 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김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등으로 불거진 박근혜정부의 인사파동을 대상으로 대어 공세의 수위를 최대한 높이는 한편 인적쇄신 즉 개각을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개각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을 놓고 "불통과 오만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이냐 개각을 하십시오 안 하십시오 모르겠지만 개각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몇몇 부처 장관에 대한 문제점이 요즘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찍어내고, 나가

겠다는 사람은 막아서, 무능한 사람은 방치하는 형국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부하장관과 양심쟁까지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며 "정부 출범 초반에 벌어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정권은 엄중한 마음으로 성찰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난맥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가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늦기 전에 대통령의 인식 전환과 결단을 촉구한다"며 개각을 예들려 압박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언급한 뒤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지시에만 순응하며 자리를 보전하는 인사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장 정책위의

장은 "장관들의 눈에 국민은 없고 오직 대통령 눈치만 살피고 있다"며 "국정원 문제의 직접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문제가 있는 인사를 필히 교체하고, 정권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인사를 등용해 조각하는 심정으로 대폭적인 인사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진 전 장관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향명한 것은 청와대로부터 말 못할 무시를 당했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불통이고 독선적인지 드러났다"고 가세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실제로 통한 진 전 장관마저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정 난맥상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30 재보선 후보 등록 10~11일 이틀간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경기 화성갑과 포항 남구·울릉군 2곳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히면서 주요 선거 일정을 공개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10~11일 이틀간이며,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9일까지 총 13일간 이뤄진다. 사전투표는 25~26일 이틀간 실시하며,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 기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신체 장애가 있는 유권자 등은 11~15일에 부재자신고서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10·30 재·보선 선거일정과 후보자 정보, 투표소 위치 등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 ☎1390로 문의해도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0·30 재·보선 선거일정

- 10.10(목)~10.11(금) 후보자등록 신청
- 10.11(금)~10.15(화) 부재자 신고 기간
- 10.11(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10.17(목)~10.29(화) 선거운동 기간
- 10.18(금)까지 선거 백보 첨부
- 10.23(수)까지 투표 안내 발송
- 10.25(금)~10.26(토) 사전투표 기간
- 10월30일(수) 투표(오전6시~오후8시) 개표(투표 종료 후 즉시)

정가 라운지

이낙연 "박근혜정부 일자리 예산 집행 저조"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일 박근혜정부가 추경편성을 했음에도 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가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보다 줄고 집행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경을 거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11조222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09년의 일자리 사업 예산 12조1199억원보다 8979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예산 집행률도 58.2%에 불과해 정부



재정 집행률 69.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구체적인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예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2009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고용창출 예산은 4조7073억원에서 2조9224억원으로 38%, 고용서비스 예산은 5938억원에서 5084억원으로 14.4%, 고용장려금 예산은 5조3129억원에서 1조7340억원으로 67.4% 각각 줄었다.

박주선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갈수록 줄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현황'을 분석, 2012년 남북협력기금은 총 사업비 1조6555억원 가운데 693억7000여만 원이 집행돼 6.5%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남북 인적왕래 지원은 사업비 18억원 중 집행률이 0%였고, 인도적 지원 역시 사업비 6463억원 중 집행률은 23억8000여만원으로 집행률이 0.4%에 불과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66.7%에서 이명박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18.1%로 급락한 뒤 ▲



2009년 8.6% ▲2010년 7.4% ▲2011년 4.1% 등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지난 7월 기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총 1조1135억원 중 857억4400만 원이 집행돼 7.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비를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광진 "주한미군 정부 배상금 15억원 미납"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에 내야 할 배상금을 일부 미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1일 민주당 김광진(비례) 의원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내야 할 배상금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선지급한 후,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16건 15억9000만원이 아직 미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년간 법원 결정에 의해 주한미군 측에 887건, 4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주한미군은 이중 16건, 15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거절 내역은 ▲유류오염 2건 8억5000만원 ▲비행기 소음 피해 6건 5억9000만원 ▲사유지 철도 불법개설 사용 1건 9200만원 ▲교통사고 5건 4200만원 ▲가로수 관리 하자 등에 따른 재물 피해 1건 2200만원 ▲월기 자공 비행에 의한 재물피해 1건 160만원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공동본점 | 227-4474
금호지점 | 383-4474
풍암지점 | 653-4474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살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분리단지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사무소입니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정로5가 버스도모점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47천 원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북구 유동 상업지역 대지411㎡(124) 2층건물 99평 공시지가 2억8200 매도3억
- 할평 영업 절되는 여관과 접한 2층 주거지 땅 504평, 땅에는 생활주택적합 대출4억 매도10억5천
- 북동 고용센터 옆 상업지64평 원룸적합 1억6천
- 계림동구호빌딩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한의원·사무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 등 적합 9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12억가능, 대출3억 매도7억8천
- 매도, 목포대학 인근 원룸 84개 허가난 땅 476평 목포대학 확장으로 사업성 좋음, 대출2억8천 매도5억6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솔로시티중도·영도리도 가능, 바다가 보이는 빌딩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휴게시설에 적합, 30평22세대 41평5세대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30평은 1억3900만원 41평은 1억8500, 임대도 가능
- 임대, 신항동 보건대학 부근 대로변 주택전시관 1층167㎡(50) 보증금5천에 월200선 임대, 조건은 조정가능
- 임대, 송촌동 (구)장군관사에 신축중인 호텔급 시설의 생활주택 10평형 기준 전세 1000에 월40선에 임대할, 10월초 첫 입주 지하월 생활에서 6분 거리
- 임대, 송촌동 기도건설의 주택전시관70평 PC방, 미장원, 찻집, 식당 등 다용도 사용가능 분할임대도 가능, 보증금 5천에 월200선 가능

문의 222-4994, 010-2632-5659
금당부동산은 가도건설 전속중개사사무소입니다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7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7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7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71억8천만
- ▷ 북구 유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7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7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711억 최저가7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730억 최저가7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794억 최저가272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1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대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대5천만(조정가능)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방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